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9
현상설계경기 / 113
계획작품 / 119
해외잡지동향 / 121
신입회원 /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8
게시판 / 130

협회소식 KIRA news

「재벌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출」 강력저지 나서

6월 9일 임시총회 개최해 강경대응책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공정위원장)가 건축설계용역업 규제완화를 포함한 「경쟁제한법령 개선안」을 마련, 이달중에 열릴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함에 따라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가 크게 반발하며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한 「건축설계용역업 규제완화 방안」 내용중에는 현행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건축설계업무를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자기시공공사에 한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이 제안은 당초 지난해말 '시공업체가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 설계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설계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이 되는 대형공공건설공사(100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한 후 99년에는 제한없이 허용할 것' 이라던 당초의 제안을 변경해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이미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재벌 시공업체들의 「설계겸업」 요구 문제가 「不同意」처리

는 등 주무부처인 건교부 역시 이를 반대해 왔음에도 같은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또다시 같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건축문화 말살정책' 이라고 밝히고 지난달말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건의문과 함께 전국 회원의 반대결의서명이 담긴 「결의문 및 서명날인부」를 전달했다.

협회는 또한 지난 5월 29일에 열린 제8회 이사회에서 오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제2회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설계자가 책임감리에 참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이달말 공포 예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자격 완화문제가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강력한 법개정반대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입법추진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어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 등 각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 이들 의견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월말경 당초의 개정안을 수정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협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자격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급감리원 또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로 명시됐던 당초의 개정안을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분야 기술

사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인 6월말쯤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달 24일 건교부로부터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한다. 다만, 기술사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시 참여하여야 한다'로 고친 수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27일에 이 법의 제54조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 건축감리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에 참여할 때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해 건교부에 조정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건축감리전문회사 대표자자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와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과천청사 집회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선일보와 서울경제신문(97. 5. 15일자) 등 일간지를 통해 법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하단 신문광고문 참조)를 게재한 바 있다.

이사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 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일(제6회)과 5월 17일(제7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회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사 경력관리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예비비 11,327,200 원)
- 제2호의안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회계규정 개정(안)중 제62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 및 직원조정(안) 승인의 건
- 회장, 부회장, 이사 3인(김광욱, 김기완, 안길원)으로 구성된 5인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후 다시 다루기로 함.

- 제4호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5인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후 다시 다루기로 함.
- 제5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이명호 교수외 2인)
- 제6호의안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일시 : 1997. 5. 28(수) 15:00 / 장소 : 울산시건축사회 회의실)
- 제7호의안 : 나주지역건축사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회

- 제1호의안 :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대구무역센터 및 종합전시장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번복의 건 : 기각)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2, 207명 합격

예년보다 높은 30.9%의 합격률

지난 5월 11일에 치뤄진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에는 총 7천1백45명이 응시, 이중 2천2백7명이 합격해 30.9%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합격률인 5.7%(9천1백2명 응시, 5백20명 합격)보다 5배이상 높은 합격률로 이들 합격자중 전문대졸 이상자가 85%, 연령별로는 30대이하가 9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p.131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발표」 공고 참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용히 일하고 싶다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도 建築士라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백지화 하라!

- 우리는 정부안의 「부서 이기주의」와 「한권 영웅주의」를 엄중 경고한다 -
- 소수편견에 영합하는 정책남발은 전문인 사회를 혼들어 놓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정부는 더이상 「감리정책의 혼란」, 「건축사 정책의 난맥상」으로 우리의 인내한계를 시험하지 말라 -
- 우리의 마지막이고도 간절한 고언이다 -

대한 건축사 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경기도 건축사회 강원도 건축사회 충청북도 건축사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사회 전라남도 건축사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경상남도 건축사회 제주도 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광역시 승격에 따라 경남건축사회에서 독립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노진달)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 협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이전 경남건축사회에 소속이었던 울산지역건축사회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현재 소속회원수는 1백14명이다.

타스건축 김인환회원, 클래식 기타 연주회 열어

수준급 연주로 청중 매료

김인환(타스건축 대표)회원의 프로못지 않은 수준높은 기타 선율이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YMCA회관 2층 연주홀에서는 김인환·Peater James Burnside 조인트 기타 연주회가 열렸다. 김인환회원은 이날 연주회에서 기타독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Capricho Arabe'와 'Minuetto in A' 등을 비롯해 미국인 기타리스트 Peater James Burnside와 듀오를 이뤄 'Moon Light' 등 기타 2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연주곡 목인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끝났을 무렵에는 홀안 곳곳에서 청중들의 앙콜이 쏟아져 나와 미처 앙콜곡목을 정하지 못한 두 연주자가 잠시 당황할 정도로 상황을 이뤘다. 현재 타스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김인환회원은 전북대 재학시절부터 클래식 기타에 심취해 이전에도 몇 차례 연주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며 기회

가 닿으면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서 기념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김회원은 특히 찬송가를 편곡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연주를 갖고싶다고 한다.

「부산건축사화우회」

해외 정기스케치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고대 역사도시 스케치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으로 해외 정기 스케치전을 다녀왔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우회 회원들은 여행기간동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오나라 도읍지인 수향인 쑤저우와 예향 항저우 등을 답사하면서 자연풍광과 전통건축물들을 마음껏 스케치했다며 올해 정기작품전 때 이들 작품들을 화폭에 담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벽식공동주택 설계

사례집 발간

실무적용 사례 등 수록

우리 협회 건축설계표준화위원회가 「벽식공동주택 설계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설계 사례집은 그동안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표준화(MC) 설계를 첫번째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실무적용 사례와 지침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제1장에서 MC설계 기준으로 수평 수직 모듈설정 방법 및 기준선도 설정 방법, 상호표준화 모듈 설정 방법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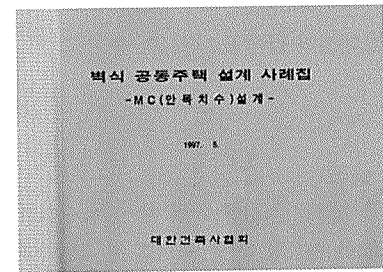
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실제 적용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은 협회가 연초 교재로 발간한 '표준화설계 가이드북'과 함께 MC 설계를 하는 설계실무자에게 설계프로세스에 따른 적용방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첫 적용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를 통하여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배포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펴냄/A3판형/135쪽/직접구입시 1만1천원, 우편구입시 1만 3천원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02-581-5711~4)



건축계소식 archi-net

헌법재판소, 건축법 14조 및

78조 위헌결정

구체기준·범위 없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벗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제14조 및 7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안재판관)는 29일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낸 건축법 14조 및 7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돼 있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범죄구성 요건을 명시토록 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5월 30일자 기사 전재>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구분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올해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성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초대전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전으로 구분해 작품을 공모하며 응모작중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갖는다. 초대전 응모작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공모전은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각각 작품을 접수받는다. 일반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 관련 작품내용을 포함한 건축창작품을 규정한 패널과 모형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응모자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서 교부하는 응모원서(출품원서대금 5만원)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반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 3점에는 상장과 상금 각 2백만원씩이 수여되며 또 특선 약간점에는 상장 및 상금 각

5십만원, 입선작 다수에는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발표된 주요 공모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품규격 : 패널 - 90cm×180cm 이내 (가로, 세로 비례는 자유로 도면에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 모형 - 가로90cm×세로90cm×높이90cm 이내
- 심사위원 : 김인철, 김창수, 김창일, 박춘근, 배병길, 윤승중, 최영집
- 발표 : 1997. 11. 18
- 시상일 : 1997. 11. 28. 15:00
- 문 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제2회 건축사진전시회」 출품작 공모

건축가협회, 건축물을 소재로 한 미발표 사진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에서는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이를 공유하고 나아가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제2회 건축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출품작은 국내외 건축물을 소재로 한 11"×14"사이의 건축관련 사진(원판첨부)으로 건축가는 물론 건축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일정 및 출품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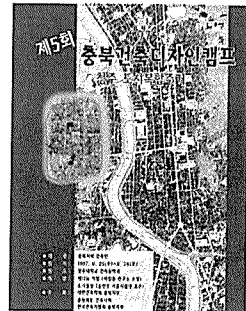
- 공모부문 : 컬러 및 흑백
- 원서교부 : 1997. 6. 16 ~ 9. 4
- 접수마감 : 1997. 9. 4(목) 오후 5시
- 출품방법 : 원서 및 출품작품 제출
- 출 품 비 : 1작품당 20,000원(출품작수는 1인당 3점 이내)
- 심사위원 : 추후발표
- 심사결과 발표 : 1997. 9. 11(목)
- 시상식 : 1997. 11. 28(금) 오후 3시 / 예술의 전당
- 전시회 : 1997. 11. 19(수) ~ 11. 30(일)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5층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97 충북건축디자인캠프

“청주 도시복합주거” 주제로
이달 25일부터 4일간 열려

충북건축사회 등 충북지역 건축3단체가 주최하는 제5회 충북건축디자인캠프가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열린다. 충북지역 건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의 디자인캠프 주제는 '청주 도시복합주거'로 이일훈 연구소 소장과 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가 '채나눔 작업', '도시중정' 등에 관해 특강을 한다.



홍익대건축학과, 英 AA School과 자매결연

내년부터 학점교류, 교환교수제 등 시행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가 영국 AA School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홍익대 건축학과는 지난 5월 10일 내한한 AA School의 Mohsen Mostafavi학과 양교간 친선과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이들 두학교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교환교수제, 학점교류, 전시행사 등 양교 학문발전을 위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한편 이날 홍익대는 관련학과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Mohsen Mostafavi학장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홍익대 건축동문회 신입회장 서상우 교수

동문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단
선출

홍익대 건축동문회는 지난 5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제12대 회장에는 서상우(국민대 건축학과)교수가, 부회장에는 강건희(홍익대 건축과 교수), 문신규(토탈디자인 대표), 김복수(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박 승(삼우설계 대표)씨가 선출되었다.

경기대 개교50주년 기념 작품전

6월 23일부터 포스코센터 전시장에서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포스코센터 2층 전시장에서 건축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대학원의 97학년도 1학기 건축전과 건축공학과 4학년생들의 졸업작품전을 「개교50주년기념 특별전」으로 꾸민 것으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학부 졸업전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대학원 봄학기과정 작품전이 각각 열린다. 특히 대학원 작품전의 경우

건축과 기술, 건축드로잉 과정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9개 디자인 스튜디오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전시 개막일인 6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승효상(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대표), 김종규(마루건축 대표)씨 등 현역 건축사들이 비평가로 나서는 OPEN CRITIQUE도 열릴 예정이다. 또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의 경우도 그동안 우경국(서울캠퍼스 디렉터 / 예공건축 대표), 배병길(수원캠퍼스 디렉터 / 배병길 건축연구소 대표)씨가 디렉터를 맡아 '관계와 흐름'을 테마로 서울 양재천 주변을 대상으로 각 스튜디오에서 연구한 작업들을 전시하며 역시 전시 개막일인 6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구영민(인하대 교수), 이종건(동명정보대 교수), Methew(삼우설계)씨 등 현역 건축사들이 참가하는 OPEN CRITIQUE이 열린다.

문의 : 수원캠퍼스 0331-40-7608/ 서울캠퍼스 02-390-5154(건축공학과), 02-390-5245~6(대학원)

「제8회 김수근 건축상」, 수상자에 故 장세양씨

수상작은 '경기도립박물관'

올해 「김수근 건축상」의 수상자로 故 장세양씨가 선정되었다. 김수근 건축상을 제정, 주관하고 있는 김수근문화재단(이사장 이경성)은 지난 5월 23일, 8회째를 맞는 올해의 이상 수상자로 故 장세양씨를 선정하고 그가 설계한 경기도립박물관을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립박물관은 건축전문위원회가 추천한 총 18개 후보작 가운데 심사위원단이 시대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작가의 세계를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가린 결과 최종 수상작에 선정된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인 故 장세양씨가 작

년에 타계하기 전에 완성한 건축물로 작가의 거시적 건축관이 그대로 건축으로 구현된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연과 건축공간, 전래적 요소와 현대건축, 곡면과 평면의 외형을 작가 특유의 감성적 기법으로 교합하여 일반적으로 박제화되기 쉬운 박물관이라는 공공장소를 지형, 공간, 시간, 상징(Symbol)과 형상(Form)을 거침없이 수용한 역사와 인간의 무대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작가인 故 장세양은 김수근의 건축정신과 조형기법을 이어받아 한국건축을 대표해 온 건축가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86년부터 (주)공간을 이끌어 왔으며 생전에 서울 차병원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 수많은 국내 유명 건축물을 설계했다. 이번 심사에는 김봉렬, 민현식, 박길룡, 승효상, 이종호씨 등이 건축전문위원으로 참가해 1차적으로 후보작들을 추천했으며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김종성(서울건축 대표), 김병현(장건축 대표), 윤승중(원도시건축 대표)씨 등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맡았다. 한편 올해 심사에는 원실업 천안공장(최승원)을 비롯해 만종감리교회(백문기), 뚝섬전철역앞 오피스(조성룡) 등이 최종심사에까지 올라 경기도립박물관과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 「작품집 출판기념회」

홋카이도 석채(石彩)교회 등
주요작품 소개

재일한국인 건축가로 일본에서 활약중인 이타미 준(伊丹潤, 60)씨의 건축작품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이타미 준 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일본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여와

일본건축계에 잘 알려져 있는 중견 건축가로 이번 작품집에는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해 온 지난 30년간의 작품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건축에 미술을 접목하으로써 건축설계의 종합예술화를 추구해온 그는 조선시대의 민화와 전통 건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온양미술관과 서울의 각인탑, 일본 홋카이도의 石彩교회 등이 있다.

이광노 교수, AIA 명예 특별회원 임명

AIA주최 건축엑스포에서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미국건축가협회(AIA) 총회에서 AIA 명예특별회원에 추대됐다.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

6월 주제는 「'근대건축'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조망」 등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홍익대에서 열린다. 이번달 발표회에서는 「'근대건축'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비롯, 「박물관 건축과 계단시설」, 「도시공간내에서 구체적 경험의 형태로서의 건축」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이상현(인우건축), 이재익(수원대 교수), 조승구(동명정보대 교수)씨가 발표한다. 6월 발표회는 특히 근대건축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근대건축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에 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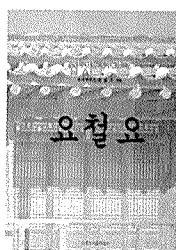
관 건축과 계단시설」, 「도시공간내에서 구체적 경험의 형태로서의 건축」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이상현(인우건축), 이재익(수원대 교수), 조승구(동명정보대 교수)씨가 발표한다. 6월 발표회는 특히 근대건축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근대건축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에 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모아진다.

문의 : 동양공전 박명덕 교수 (02-610-1806)

건축신간 안내

집짓는 이야기-요철요/
Hyper Architect ~

◇ 집짓는 이야기 - 요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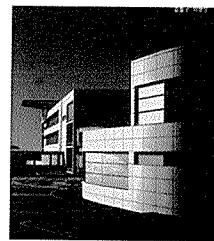


이 책은 서울 환경 계획연구소를 운영하는 저자 현영조씨가 폐허로 방치되었던 인천의 어느 한옥을 헐면서 나온 현자재를 이용해 남한산성에 새로이 집을 짓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는 한옥을 해체하는 과정과 새집을 짓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요철요의 건축요소'를 비롯해 요철요를 지으면서 일어났던 얘기거리들과 각 공간에 대한 기능해석을 엮은 '요철요의 사연', 요철요의 건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요철요의 공간들' 그리고 저자의 주생활공간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후진적인 도시는 정신병원이다', '현재의 주생활공간은 혁신되어야

한다', '철학적인 삶의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우경국(예경건축 대표)씨와의 대담내용이 실려 있어 요철요의 이해를 깊게 해주고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요철요의 상량식에서 읽은 당대의 성리학자 權五虎선생이 지은 상량문이 실려 있어 전통가옥으로서의 요철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건축도서출판공사 펴냄 / 4×6배판 / 181쪽 / 2만2천원 / 문의 : 02-547-6156~7

◇ Hyper Architect-건축·컴퓨터·프리젠테이션



그래픽을 근간으로 하는 첨단 건축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주)동우건축이 창립20주

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정보화사회가 몰고 올 디자인 혁명을 준비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은 건축가가 풍부한 디자인 사고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써 건축에 접근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함은 물론 건축설계개념을 발전시키거나 설계아이디어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의 핵심요소중 하나이다. 이 책은 다양한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사례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컴퓨터로 인해 건축가의 창조적 영감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컴퓨터를 기초로 한 건축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이론적 기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강철구·이현수출 / 도서출판 학천 펴냄 / 192쪽 / 26cm×26cm 컬러 양장본 / 3만6천원 / 문의 : 02-512-1373